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 확진자 거주 아파트 이름 공개”

“이동통신 공개 늦어져 불편 끼쳐 송구해...시민 혼란 최소화 위해 결정”

“확진자 방문했다라도 방역소독 잘하면 안전해...안심하고 이용하시길”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 아파트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지역감염 확산과 함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이동통신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일만에 8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역학조사팀이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확진자의 구술에 의해서만 동선 발표를 했다가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CCTV나 신용카드 내역, GPS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해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다 보니 확진자 동선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선공개는 시민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시장인 제가 동선 확인과 공개를 챙기고 있다”며 “5개 구청장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 등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해서 이동통신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부터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공개한다”며 “앞으로 확진자에 대해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거지가 공동주택일 경우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확진자가 방문했다라도 방역소독만 잘하면 안전하다”며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확진자가 방문하더라도 방역 이틀 후부터 안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신속한 확진자 동선 확인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동구 어린이집서 아동 2명 확진...코로나19 검사

6일 오전 광주 동구 청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ough)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차량에 탄 시민과 아이들을 상대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오후 금양오피스텔 관련 광주 110번 확진자의 외손주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동구는 아동 확진자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교직원 등 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9면>

전남 먹노린재 발생 19.8% 증가...농기원, 적기 방제 당부

전남농기원, 21개 시군 7797ha 본논 이동 7~10일 빨라질 듯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월동해충인 먹노린재 발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농기원이 6월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먹노린재는 21개 시군에서 7797ha(벼 재배면적의 5.2%)에 발생,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겨울철 평균기온이 평년

보다 1.9℃ 높아 먹노린재 본논 이동시기도 작년보다 7~10일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먹노린재는 낙엽속이나 잡초 밑에서 겨울을 보내고 모내기 시기인 6월 상·중순 쫄 본논으로 이동해 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입히며, 벼 줄기 속 어린 이삭의 즙액을 빨아먹어 쌀에 반점이 생기게 만든다.

먹노린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답 이동 최성기인 6월 하순~7월 상순에 논 두렁과 논 가장자리 위주로 약제를 뿌리고, 벼가 어린 시기에는 논바닥까지 물을 빼고 살포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친환경단지를 중



심으로 33억 원의 방제비를 편성, 6~7월 중점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2차 발생기인 출수기 전후(8월상·중순) 벼 기본방제기간을 설정해 먹노린재 집중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사망

간경화 기저질환 지닌 50대...방역당국 위험요인 노출력 역학조사

전남에서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간경화 기저질환을 지닌 50대 남성 A씨(해남군 거주)가 비브리오패혈증으로 5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일부터 하지 부종과 반점, 수포발생, 청색증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1차 방문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일 광주 소재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당일 숨졌다.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일 확진 판정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환자

의 음식섭취, 상처감염 등 위험요인 노출력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 치사율이 50%까지 이르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온도가 18℃이상으로 상승한 5월과 6월쯤에 발생하기 시작, 여름철 중 8월부터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있는 상처를 통한 바닷물 접촉으로 감염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3~4개월 빠른 지난 1월에 발생했다. 5월에 2명의 환자가 신고되는 등 이전보다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해수에서도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김영주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을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만성 간 질환자와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아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